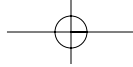


Healing and Antichrist

신유와
적그리스도



Healing and Antichrist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1999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신유와 적그리스도

지은이 | James W. Knox
옮긴이 | 이우진

초판발행 | 2010.7.7.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표지디자인 · 편집 |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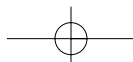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 ISBN 978-89-8974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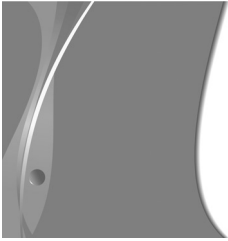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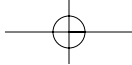
■ 정가 1,000원

이 책은 James W. Knox의 책, Signs, Wonders and Miracles의 Chapter 3: Slaying in the Spirit, Chapter 4: Sickness and Healing, Chapter 5: Signs and the Rise of Antichrist를 번역 및 요약한 것입니다.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Healing and Antichrist

신유와 적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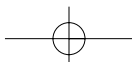
1. 영 안에서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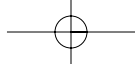
“영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전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교에서 행해지던 것을 제외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후반기에 이르러 기독교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잠 13:13) 성경을 연구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살전 5:21)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종교적인 마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들로 인해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3





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고후 2:11)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속한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신뢰한다면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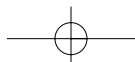
비극적인 사실은 교회를 통해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느낌에 의지해 주님을 찾다가 오류에 빠지고 미혹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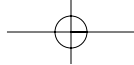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신유 같은 영적인 은사들은 모두 성경적인 것인데 반해(이것들에 관해서는 잘못된 적용이 문제임) 은사주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 안에서의 죽음”과 같은 “뒤로 넘어지는 현상”은 결코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힘든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의 감정이나, 경험, 친구들, 교회 전통과 다르면 그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 버리고 결국 자신들과 똑같이 미혹된 사람들에게로 달아나 버립니다.

소위 “영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은사주의 목사가 손바닥을 펴고 상대방의 이마를 밀어 쓰러뜨리면 그 사람은 뒤로 쓰러지게 되고 그러면 집회에 모인 무리들은 환호하는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또 내가 울래 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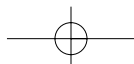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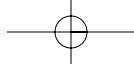


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이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단 8:16-18) 이 본문에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경배와 관련있는 것은 뒤가 아닌 앞으로 숙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고전 14:40)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공적인 예배에서 성인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남자들 앞에서 뒤로 넘어져 눕는 게 과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일입니까? 뒤로 넘어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은사주의 설교자들은 집회에 올 때 여자들은 바지를 입고 올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요일 4:1) 영들을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타나는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미혹하는 영들과 센세이셔널리즘, 혹은 길흉을 점치는 영들의 일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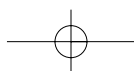
집회에서 주관하는 영이 과연 어떤 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인간의 영이나 더러운 영의 사역의 결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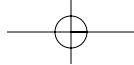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친절하시고 품위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사람에게 머물면 그 사람은 뒤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대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고전 14:24-25)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앞으로 쓰러지게 되면 코를 부러뜨리거나 이빨이 깨지거나 눈을 다치지 않을까요?” 만일 사악한 영이 쓰러뜨린다면 그렇게 다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전혀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성령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그의 의지와 이성애 반해서 쓰러뜨려 억지로 경배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자신의 열매 중 한 부분이 바로 ‘절제’ 입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25을 보면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는 복종과 겸손과 회개와 경배의 증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

61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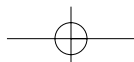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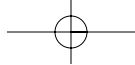


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쓰러짐”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하더라.”(마 17:6) 엎드리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 오더라.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이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단 8:17-18) 주님께서서는 자신 앞에 엎드린 사람을 똑바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실 까요?

성경에도 뒤로 넘어져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관속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저기로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일들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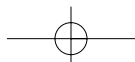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요 18:3-6)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된 성도들이었나요? 이들은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의 원수들로 주님을 고문하고 죽이려고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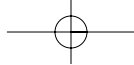
당신은 결코 자신의 경험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경험이 언제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잘못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영적 혼돈의 시대입니다. 거짓 설교자, 거짓 환상, 거짓 경험, 그리고 거짓 간증이 어디서나 넘쳐납니다. 미혹하는 영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거짓된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망쳐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뒤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혼계 위에 혼계가 되며 혼계 위에 혼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울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사 28:13) 지금 주님께서 경배와 부흥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거부당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당하십니다. 하나

81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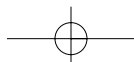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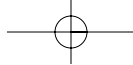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참된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의 결말은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 울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집회에서 “영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방언을 받고 특이한 경험을 하는 것과 유사한 장면이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 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곧 그 영이 그를 쥐어뜯으므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막 9:17,18,20,26) 이 어린 아이는 “영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며 인간을 파괴하려는 더러운 영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더러운 영의 사역에 대항해서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막 9:27)

예수님께 고통을 가하고 죽이려고 했던 주님의 원수들은 뒤로 물러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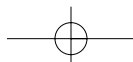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온 어린 아이는 더러운 영에 시달리며 넘어지고 땅에서 뒹굽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 찾을수록 뒤로 쓰러지고 “영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행위는 우리 주님의 원수들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쓰러지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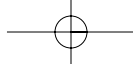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2. 질병과 신유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고침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의사의 손을 통해 또는 약사의 약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많은 경우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

10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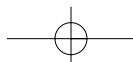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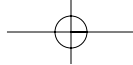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징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오리라, 하시더라.”(막 16:15-18)

절대 다수의 아담의 자손들은 육체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육신적으로 잘 사는 웰빙입니다. 몸이 아프면 고침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려고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낫지 않으면 신유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종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옛뱀이 동산에서 사용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4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1) 연약함(infirmity) : 약하게 된 상태
- (2) 야윈, 해(illness) : 정신이나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
(illness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음)
- (3) 질병, 병(disease) : 몸의 일부가 고난을 받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상태
- (4) 역병, 재앙, 병(plague) :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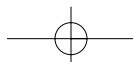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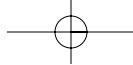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네 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들을 허용하시거나 보내셨습니다.

- (1) 죄에 대한 심판
- (2)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 (3) 육체를 연약하게 함으로 인해(영적으로는 오히려 강건해지기 위해)
- (4)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

병에 대한 첫째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2:1-10에 나온 미리암의 경우를 통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온유하다는 것은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므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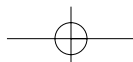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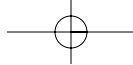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시매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민 12:1-10)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반역하는 미리암을 쳐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다른 예는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이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고전 11:27-30)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악하게 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병에 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병든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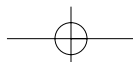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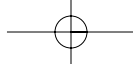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세 친구가 저지른 실수입니다. 병든 것의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일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네가 당할 재앙과 네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가리라. 또한 그분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붙게 하시며 또 주께서 이 율법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네가 멸망하리로다.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의 수가 많지 않으리라.”**(신 28:58-62) 저는 중세 교회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유럽을 휩쓴 역병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병의 둘째 원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눈먼 자들이 보게 한 것입니다. 만일 병든 자나 죽은 자나 눈먼 자나 나병환자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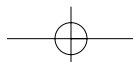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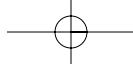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든 자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해 뜨는 곳에서와 서쪽에서 온 자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사 45:6-7)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암 3:6) 죄와 사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에 대해, 자신의 허용하시는 뜻에 따라 눈감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행 17:30, 시 22:1, 합 1:13).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 언제나 책임을 지십니다. 모세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실 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경우처럼 간접적인 책임을 지실 때도 있습니다. 옴은 사탄이나 자연, 혹은 그 밖에 자신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도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탄생한 국가입니다.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손을 네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네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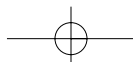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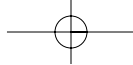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출 4:6-8) 고린도전서 1:22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성경은 오늘날 악한 세대가 그러한 것처럼 그들이 단순히 표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유대인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입니다.

질병을 고치심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요 11:1-4)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음으로 인해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요 9: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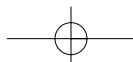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종종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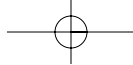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12:5-7)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적 건강을 위해 몸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습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속 사람이 지배할 수 있도록) 완전(영적 완숙함으로 자라감)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병고침 받는 것보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병든 상태)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고후 12:8-9)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배운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고후 12:10)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주님께서 자신들을 질병 가운데 놓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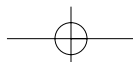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며 치유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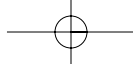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질병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넷째 원인은 저주입니다. 아담이 죄를 선택했을 때 두 가지 저주가 이 땅 위에 임했습니다. 첫째 저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혼들은 둘째 죽음의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사 53:5) 또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갈 3:13)

둘째 저주는 에덴의 동산에서 선언된 것으로 땅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7-19)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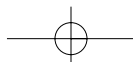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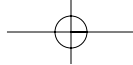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 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 하매”(눅 4:5-7)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은 사탄의 권력 아래 있었습니다. 루시퍼의 이러한 발언을 주님께서서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 세상의 신”(고후 4:4)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에 죄에 대한 저주가 되셨고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갈 3:13).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마 28:18)

만일 주님께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아직도 질병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값은 치러졌지만 실제적인 구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후에 있을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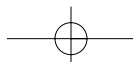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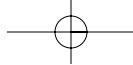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계 11:15-17)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서는 왕이 아니십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자유롭게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뉴욕, 워싱턴, 모스크바, 로마, 도쿄 등의 도시를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오셔서 정복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왕국을 아직은 실제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심이 분명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고전 15:42-43) 그리스도인의 몸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별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고후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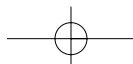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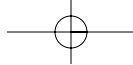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4) 현재 우리의 몸은 천한 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 3:21)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저주는 주님께서 오실 때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둘째 죽음을 맞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첫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딤후 5:23) 디모데의 병은 불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심을 내도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활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공활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빌 2:25-27)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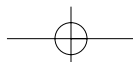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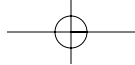
로디도가 병든 가운데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 두었노라.”**(딤후 4:20) 바울의 동역자들도 병약했지만 이들이 모두 죄를 지었거나 믿음이 없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는 동안 선한 사람들도 여전히 병들고 죽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대언자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엘리야의 두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아프게 되니”**(왕 13:14)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의로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겔 14:14) 그러나 선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단 8:27) 신약과 구약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선한 사람도 병들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육신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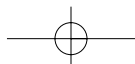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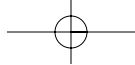


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계 21:3-4) 병약함, 슬픔, 고통, 그리고 죽음은 모두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결과입니다.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시간이 더 이상 없는 때, 즉 충만한 때가 이를 때까지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더 바랍니다.

논의를 끝내기 전에 봐야 할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목회를 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역을 하는 부흥사가 아님)의 장로들(복수형, 개인이 아님)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약 5:14-15) 이 구절들의 분명한 적용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그 일부로서의 자연 세계에 내려진 저주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온 장로들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온 장로의 자격을 갖춘 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은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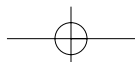
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격을 갖춰야만 주님 앞에서 장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효력은 그러한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치유받아야 할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음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은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들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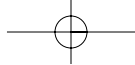
우리는 앞에서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인해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 (1) 죄에 대한 심판
- (2)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 (3) 육체를 연약하게 함으로 인해 영적으로는 오히려 강건해지기 위해
- (4)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

그러므로 사람의 병이 낫지 않는 성경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이 들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경우
- (2) 지금은 표적과 기적의 시대가 아니므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 (3) 성경적인 방법으로 병고침을 위해 기도했으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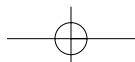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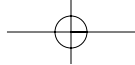


- (4)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병든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더 열매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 (5)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삶이 끝나서 질병을 통해 그를 주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

병고침을 바라고 교회에 갔으나 자신의 믿음없음으로 인해 병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절망에 빠져버린 불쌍한 영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 은사를 내세우는 가짜 신유자들 때문에 수많은 불쌍한 영혼이 상처받은 채 교회를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신유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심판의 날에 그러한 거짓 신유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도 여전히 병자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병자를 고치시며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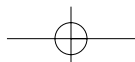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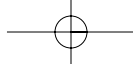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3. 표적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성경 역사의 모든 시대, 즉 율법을 주시기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오순절 이후 시대나, 심지어 환란과 천년왕국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지만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에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히 11:6)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급은,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인류를 특정한 방법으로 다루시는 것을 매우 주의를 기울여 조심히 살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과 위로와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특정한 가르침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고전 10:32)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든 잘못과 거짓 교리는 이들 세 구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분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입니다. 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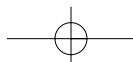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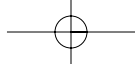
은 오직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눈먼 안내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구해야 할 것을 교회가 구하게 가르치는 것은 이단 교리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세 그룹의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또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고전 1:22-24)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고후 12:11-12) 표적들은 사도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들은 믿는자들의 표적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표적도 아니요 바로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열한 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주님께는 더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중 70명을 보내기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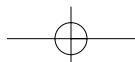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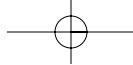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시에는 120명의 무리가 주님을 따랐으며 40일 후에는 500명으로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고전 15:6). 그러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확증할 사 람 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5가지 표 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막 16:14) 주님께서 열한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막 16:15) 마가복음 16장의 지상명령과 은사의 약속은 문자적, 교리적으로는 열한명의 사도들에게 약속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표적의 은사가 사도들의 사역 에 사용되고 드러났음은 명백합니다. 사도들의 표적으로 인해 새 로운 메시지가 새로운 지역에서 능력있게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며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 하는 자들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며 그들을 시험해 보야 합 니다.

- (1)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다섯 가지 표적을 모두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한다면 그가 다섯 가지 표적을 모두 행하며 또한 표적을 행할 때에 성경에 나온 대로 행하는가 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신유의 능력 으로 병자를 고칠 때 병자는 즉시 나았습니다. 은사를 발휘해 서 병을 고친다면 병은 즉시 나아야 합니다.
- (3)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표적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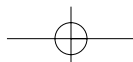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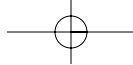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한다면 그가 표적을 행하면서 진리를 확증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가 표적을 행하면서 기록된 신약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전한다면 그는 거짓 교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과 기록된 성경이 일치하지 않으면 항상 기록된 성경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벧후 1:16-21).

(4)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표적을 행하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는 거짓 교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무슨 근거로 자기의 말을 믿겠느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출 4:1).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손으로 기적을 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매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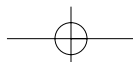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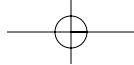


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며 그분께서 이르시 되, 이것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출 4:2-5)

이 때까지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과 함께 탄생한 것입니다.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손을 네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 되, 네 손을 다시 네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출 4:6-7)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때까지 사람들은 늙어서 죽거나 살해당해 죽거나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병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질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무엇이라고 부르실까요?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네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출 4:8-9) 주님께서서는 두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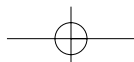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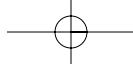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순간부터 표적과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모세에게 주셨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여호수아의 사역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간 지속되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그 세대가 죽으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계하셨지만 이제 방법을 바꿔서 대언자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자를 율법과 대언자로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마 11:13)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마 5:17)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마 22:40)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자 이번에는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어겼지만 그러한 경고를 듣고 싶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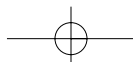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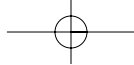


를 지적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으므로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려면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대언자(대언자, 예언자)”라는 칭호는 엘리야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 두명이 나타나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와 첫째 대언자인 엘리야였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주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전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전자라 불렀더라.)”**(삼상 9:9) 대언자라는 명칭은 엘리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사까지 이어졌습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다시 한 세대 동안 지속되다가 엘리사 이후로 다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로 900년간 이스라엘에게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매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언자를 통한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확증됨으로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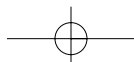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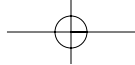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
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눅
16:16)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
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영적인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
로운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러한 은사가
전수됨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또 다시 한 세대 동안 행해집니
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이미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
다. 바울과 디모데는 모두 병들었으며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에베
소서에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표적의 은사
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 자신이 사도
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에 대
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사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네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
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
아내었으며”**(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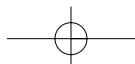
성경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며 거짓된 왕이자 거짓된 그리스도 행세를 할 자가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왕국을 세우고 대환란 기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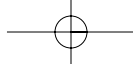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강한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살후 2:11) 배교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으로 찾아온 거짓 메시아를 믿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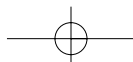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거짓된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찾아온 거짓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은 거짓된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 의하면 어떤 거짓되고 마귀적인 것이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우리를 무지한 채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살후 2:1-4) 이 본문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는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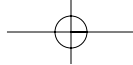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 2:5-12) 적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유대인들과 수십억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거짓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오순절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은사주의 교회 등 다양한 교파와 종파에 속한 교회들이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거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이들 교회들의 역사적인 위치는, 이들이 하나로 일치하기에는 서로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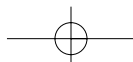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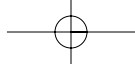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서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 운동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따르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고백은 형식적이된 채 감각적인 것만을 찾아나서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종착지는 마귀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약 3:15).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4에서 경고받은 것처럼 다른 영을 받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모세가 행한 표적을 흉내낼 수 있는 마술사들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출 7:10-13).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단 4장). 팻포의 도시에 있던 싸이프러스 섬에서 사도 바울도 마술사를 상대한 일이 있었습니다(행 13:4-12). 바울은 부리는 영에 사로잡힌 점치는 소녀를 상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 많은 사람들을 가뒤편에 두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행 8:9-13).

이러한 것들은 사탄도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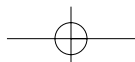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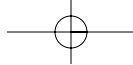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게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1-3)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자신을 위해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이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도 자신의 사악한 사역자들이 교회와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적은 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영들을 시험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표적을 행하는 자들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믿는다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의 세계적인 교회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모으신 교회가 아니며 마음은 전혀 없는 채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교회는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능력이 있는 자를 찾을 것이며 어떤 자가 표적과 능력으로 온다면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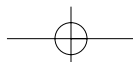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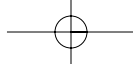
종교계는 죄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그의 자리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신의 사역 자들에 의해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영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이방인이나 교회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유대인들이 대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성경에 의하면 세 번에 걸쳐 역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주시며 모세와 함께 드러났고, 대언자를 주시며 엘리야와 함께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복음을 주시며 드러났습니다. 이 세 경우 모두 표적은 한 세대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 운동은 적그리스도의 발밑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미혹의 역사입니다.

이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시대가 남았는데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다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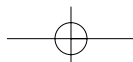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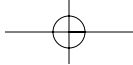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1-15)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이미 2천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떤 사람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를 따르면 미혹의 역사에 빠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거둬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며 무엇이든지 초자연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의 사역과 짐승의 능력있는 역사를 구별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종교인들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 운동을 통해 공통된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무대는 완성되었습니다. 연기자들도 준비를 끝냈습니다. 연기자들에게 빨려들어갈 청중들도 다 모였습니다





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라도 나팔이 울리면 막이 열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무리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은 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